

#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배영애 (서울대학교)

## 국문요약

본 논문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와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인민반'이 어떻게 운영되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있는 조직이다. 북한의 '인민반'은 체제유지를 위해 그 역할과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하는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 구현과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사회동원과 많은 경제과제 수행, 사회통제 조직으로서 주민들의 광범위한 일상생활의 감시와 검열 등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여건에 따라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의 체제이완은 인민반의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인민반'의 조직적 연대감 약화와 함께 인민반장의 태만, 반원들의 조직이탈과 '인민반'을 통한 정책관철에 대해 전반적인 무관심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인민반의 역할 체계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경제난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장의 대규모 교체와 '인민반'의 재정비를 통해 그 역할을 복원하게 된다. 북한 당국의 인민반 역할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인민반'의 경비초소의 복구, '1일 점검체계'와 주민행정법 개정, 주민들의 씹씹이와 전기검열 등 주민들의 통제와 검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적·경제적 자원의 부족한 측면을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여 활용하고 있다.

주제어: 인민반, 체제유지, 사회적 관계망, 사회동원, 주민통제.

## I. 서론

### 1. 연구목적과 방법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이 지속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백만의 아사자들이 발생한 최악의 식량난 속에서도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2011년 김정일의 사망 후에 3대 후계세습을 이어받았지만 붕괴되지 않았고, 김정은 체제는 외형상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경제여건과 세계에서 유일한 3대 세습과 1인 독재체제, 폐쇄적인 사회구조와 인권유린 등 처해 있는 제반 여건들은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마저 보장해 주기 힘든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많은 분쟁들을 유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내외 환경변화와 위기에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체제 및 정권을 비교적 유지하는 이유는 엄격한 통제정책과 이를 수행할 통제기구 및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사회통제 정책은 그 어느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그 양식이 거미줄처럼 조직되어 매우 복잡하며, 정교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사회통제를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체제동조 이념의 내면화를 통한 자발적 동조,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 당과 정권 기관을 통한 물리적 통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조직에 소속되어 일생동안 중첩적인 학습망으로 이어지는 ‘조직화된 강제’의 상황에서 일종의 규범적 압력을 받고 산다.

이러한 규범적 압력 속에서 반복적인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각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내면화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sup>1)</sup> 북한 주민들은 7세부터 공식적인 '소년단' 조직생활을 시작하여 '청년동맹,'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민주여성동맹,' '인민반' 등에 가입하여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조직생활을 하면서 통제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해 20~40세대로 묶은 '인민반'을 조직하고 있다. '인민반'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없었던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특이한 조직으로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북한은 '인민반'에 대해서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사회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가구'를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의 하나"<sup>2)</sup>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반'은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국가의 공권력의 개입과 정책집행이 제도화 되어 있다. 우리도 '인민반'처럼 일정한 규모의 세대를 묶어 조직한 '통·반'이라고 하는 행정 기초단위가 있으나, 역할과 기능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인민반'은 정책집행의 말단단위로, 정치·사회와 행정조직을 결합한 독특한 사회제도이다. 또한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최말단 기층조직이며, 주민들의 삶이 스며드는 일상공간으로, 그들의 사적영역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포괄적인 기초 사회집단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인민반' 제도는 우리의 '통·반' 제도와 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보다 통제와 감시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모든 조직들은 일정한 공통된

1) 배영애,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통일전략』, 제11권 4호 (2011), p. 153

2)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294.

기준(연령, 직업, 성별, 결혼)을 가진 특정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인민반’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체제유지에 있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조직인 ‘인민반’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인민반’의 형성과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중심인 ‘인민반’이 체제유지를 위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민반’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시기와 경제난 이후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인민반’이 어떻게 작동과 운영되는지를 고찰하여 북한의 체제변동에 따른 ‘인민반’의 역할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문헌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자료들 중 탈북 주민들의 수기와 면담 등의 내용들을 활용하였다.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직이라 현장연구나 북한 이탈주민들의 심층면접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현장연구가 거의 불가능하고,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북지원 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자주 소통한 ‘좋은벗들’의 활동과 조사 작업을 통해 얻은 자료들, 주간으로 발행되는 『오늘의 북한소식』을 활용하였다. 또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로 알려진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인민반’ 조직의 실태와 주민들의 ‘인민반’에서 생활모습과 관련된 인터뷰와 수기 내용이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 2. 선행연구의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북한의 인민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인민반에 관해 단편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르 제빈(1994)의 연구가 북한의 인민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하다. 제빈은 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체제로서 발현형태의 측면에서 인민반을 보고 있으며, 그 기능을 정치·교양, 경찰·재정, 경제·조직이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제빈의 연구는 인민반의 구체적인 일상모습과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3)</sup>

나머지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북한 인민반에 관해 단편적으로나마 다루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우영(1999), 김종수(2008)의 연구에서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또는 조직으로서 인민반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사회통제 기구로서 인민반의 역할만 파악하고 있어 실제 인민반의 구성원들의 관계나 모습의 언급이 거의 없고 인민반의 사회통제 역할만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4)</sup>

둘째, 김석향(2004), 통일교육원(2008), 통일교육원(2012)의 연구에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노력동원에 대해서 인민반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북한 주민들의 동원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반의 경제적 역할만을 언급하고 있어서,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

3) 알렉산드라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 연구』, 통권 91호 (1994), pp. 141~159.

4) 김종수,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인문사회연구』, 제21집 (2008), p. 15; 배영애,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통일전략』, 제11권 4호 (2011), p. 155;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6.

반의 역할에 대해서 다양하게 언급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5)</sup>

셋째, 북한 지방행정조직의 말단 조직으로서 인민반에 관한 연구들이 다. 박영자(2005), 임도빈(2015)의 연구에서는 인민반의 행정조직의 구성과 감독기관(동사무소, 지방인민위원회)과의 관계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인민반의 구성과 행정 조직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인민반에 대해서 행정조직의 측면에서만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실제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다양한 역할을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p>6)</sup>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 인민반이 체제유지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결여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이완에 따라 인민반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역할의 변화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이 인민반의 역할을 단순히 사회통제 조직으로만 또는 노력동원으로서의 역할만 언급했다면, 본 연구는 인민반에 대하여 단편적 서술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 인민반의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인민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집단주의 구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 측면을 분석하여 반원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반원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인민반의 역할은 단순히 노력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다양한 물자지원과 경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언급되

5)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p. 262~263; 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08), p. 48; 통일교육원,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pp. 6~10.

6) 박영자, “북한 지방 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2005), p. 312; 임도빈 외,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53권 4호 (2015), p. 145.

지 않았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와 경제난 이후인 2000년대 부터 최근까지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는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사회에 가장 극심한 환경변화와 배급제의 붕괴로 체제의 이완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인민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하여 체제변동에 따른 '인민반'의 실태와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북한 인민반의 형성과 조직체계

### 1. 인민반의 형성

인민반의 제도화는 1958년부터 1973년까지 시행된 5호담당제의 전환에서 비롯되었다.<sup>7)</sup> 북한에서는 1947년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공민등록제로 바꾸어 전통적 가족제도를 제거했다. 특히 공민등록사업을 사회안전부(경찰기구)에서 취급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동태를 조직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고, 체제에 반대할 수 있는 불순계층을 감시, 통제하고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장치로서 5호담당제를 신설하게 되었다. 5호담당제는 1957년 5월 30일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당중앙위원회 결정과 1958년 7월 김일성의 현지지도로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주민선전실'을 방문하였을 때 "유급간부 한 사

7) 조병영, "북한의 주민통제정책," 『순천대학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7권 (1988), p. 128.

람이 주민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 해서 리 사업을 추켜세우며 리 당위원회에서 그들을 모아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 된다”<sup>8)</sup>라고 지시함에 따라 1958년 12월부터 처음 시행되었다.

5호담당제는 5세대를 1개 단위로 묶어 그 중 열성당원인 1명의 세대주를 5호담당선전원으로 배치하여 나머지 세대를 감시하는 제도이며, 각 세대의 사상동태, 일상생활 등 일거일동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 5호담당선전원은 학교 교원이나 열성당원 가운데 우수한 자가 임명되었고, 5가구 구성원들의 사상교양 사업을 책임지며, 노동당과 대중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였다. 5호담당제는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일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담당선전원의 자질부족 때문이었다.<sup>9)</sup> 이 제도는 1960년 이후 노동적위대 조직의 확대와 ‘전 지역의 요새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붉은가정창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한층 더 강화되어 북한 전 지역에 걸쳐 확산되었다.<sup>10)</sup>

이 시기부터 5호담당제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행동까지 규제하는 통제수단으로 발전했다. 5호담당제의 지도 내용으로는 첫째, 매 가정, 매 개인들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소질·취미·희망·사상 등 동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도할 것, 둘째, 생산에서 가

8) 『로동신문』, 1967년 9월 13일.

9) 1967년 9월 13일 『로동신문』에서는 “군중교양의 힘 있는 방법, 5호담당제”라는 제목으로 “수준이 어린 관계로 처음에는 5호담당 선전원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던 동무들도 이제 와서는 자기가 맡은 5호 내 군중들을 훌륭히 교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5호담당제가 시행 초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10) ‘붉은가정창조운동’은 5호담당선전원의 배석 하에 가족회의를 열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총화(비판)함으로써 북한 사회의 감시와 통제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항구, 『북한의 현실』 (서울: 신태양사, 1988), p. 181.

정에 이르기까지, 성인으로부터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5호담당제는 1973년부터 주민통제 강화를 위하여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연대 책임단위가 5가구에서 10가구로 늘어나게 되었고, 도시에는 '인민반', 농촌에는 '분조담당제'로 세분화되어 실시되었다.<sup>12)</sup> 따라서 북한 인민반의 형성은 1973년부터 5호담당제의 명칭과 제도의 전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5호담당선전원의 역할은 인민반장으로 교체되었다.

## 2. 인민반의 조직체계

북한은 인민반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서 가까이 있는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망라하고 리(읍, 로동자구, 동)밑에 조직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다 인민반으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북한에서 거주 등록된 주민들은 지위와 계층,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거대한 조직인 인민반에 소속된다.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최말단 행정정보조(기층)조직이며, 사회생활의 기초집단이다. 인민반의 규모는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는데, 보통 1개의 인민반은 평균 20~30세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부터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의 인구밀집화로 인해 인민반이 20~40세대로 확대·개편되었다. 때로는 도시에서 아파트 한동에 70세대가 살아도 이들이 전부 1개 인민반에 소속되는 경우도 있다.<sup>14)</sup>

일반적으로 30~40개의 인민반이 최말단 행정조직인 1개의 동(洞)을 구

11) 북한연구소 편, 『北韓社會論』(서울: 북한연구소, 1977), p. 221.

12)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26.

13)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654.

14)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교육원, 2004), p. 262.

성하며, 동(洞)과 인민반은 지방(시·군·구역)인민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당정책을 관철한다. 동사무소는 1개의 구 혹은 군 단위로 10~15개로 구성되며, 동사무장과 동당비서가 있다. 동사무장은 동(洞)의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동당비서는 유급비서로 동(洞)의 모든 당사업을 책임진다. 동당비서는 동 담당 주재원(보안원, 경찰관과 유사)과 수시로 회의를 하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한다. 각 인민반의 인민반장이 동사무장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시·군·구역)인민위원회 행정지도과에서 당의 방침을 동사무장에게 지시하면, 동사무장은 인민반장에게 지방(시·군·구역)인민위원회의 방침을 하달하고 행정업무를 지시, 관리하는 체계이다.<sup>15)</sup> 아래의 <그림 1>은 인민반의 조직체계이다.



<그림 1> 인민반의 조직체계

<sup>15)</sup> 임도빈 외,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53권 4호 (2015), p. 145.

인민반의 구성을 보면, 인민반장과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안전소조원(비밀정보원) 그리고 인민반원들(인민반 구성원들)로 이뤄져 있다. 인민반장은 우리의 '통장'과 비슷하며, 주민이동, 전출, 위생, 문화, 노력동원, 사상교양, 환경정리, 공공주택관리 등 인민반의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통제하는 총책임자이자 주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공개된 '스파이'이다. 북한에서 인민반장의 위치와 역할을 "인민반장이 우리 당정책을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며 때 가정의 형편을 구체적인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반원들의 생활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다"<sup>16)</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반장은 소속 주민들의 추천 형식을 거쳐 시·군(구역) 인민위원회에서 임명을 하며, 동사무장이 인민반 주민들을 모아 놓고 당 조직의 결정으로 "000가 인민반장으로 임명되었다"고 선포한다. 인민반장은 주로 직장에 나가지 않는 가두여성(전업주부)이 맡으며, 인민반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과 통솔력을 갖춰야 하고, 출신성분이 좋은 여성 당원이거나 간부의 부인이 맡기도 한다. 인민반 사업이 잘 운영하기 위해 월급을 인민반장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도시의 인민반장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인민반장은 인민반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생필품 배정과 공급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인민반장은 별도의 혜택이 없으나. 평양과 같은 대도시의 인민반장은 안전부(보안서)에서 식량배급 600g에 월급 30원(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 일반 노동자 한달 평균 월급 100원)을 주었다. 이 외에 평양의 인민반장은 식료품, 공업품, 백화점, 옥류관 등 평양시 유명식당과 상점의 특별 배정품을 분배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sup>17)</sup>

16)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654.

17)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 (2006),

특히 평양시나 대도시인 경우에는 인민반장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인민반원들이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으며, 만약 지시를 거부하면 지방으로 추방되기도 한다.

“나는 함흥시 동흥산구역 운흥1동에서 인민반장을 지냈다. 운흥1동에는 48개의 인민반이 있고 한개 인민반에는 대략 30가구가 속해 있다. 함흥시의 인민반장에게는 월 30원이 지급된다. (중략) 평양시의 경우 인민반장의 고발에 의해 주민이 지방으로 쫓겨날 수도 있어 인민반장의 위세가 제법 높은 반면 지방 도시는 평양만 못하다.”<sup>18)</sup>

세대주반장은 당에서 직접 임명하며, 인민반에 소속된 가구의 세대주(남편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남자가 맡는다. 그 역할은 세대주들만을 상대로 회의, 노력동원, 강연회 등을 주최하고, 선거행사 때 각 세대주의 통제와 퇴근 후의 동태까지 파악하는 역할을 주로 한다. 특히 평양시는 세대주 반장제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과 달리 평양은 중앙기관들이 밀집되어 있고, 기관별로 실적과 충성평가 형태의 우대 공급을 하는 관계로 평양시의 많은 주민들이 기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주 환경에 맞는 통제를 위해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세대주 반장 제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발단은 중앙당 간부가 퇴근 후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 사건 때문이다. 김일성은 “간부들은 출근해서만 간부가 아니라 퇴근해서도 간부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며 직장생활의 연장선에서 동 인민반 제도 안에도 남편들의 생활을 별도로 관리 감독하는 세대주 반장 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sup>19)</sup> 이렇게 중앙당 아파트에만 적용했던 세대주 반장제도를 김정일이

p. 191.

18) 『조선일보』, 2005년 3월 23일.

19) 통일교육원, 『북한 사람들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서울: 통일교육원, 2012), p. 7.

당 조직비서가 된 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위생반장은 인민반의 환경·위생 책임자이며, 인민반 내의 거리, 마을 위생이나 주민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집행한다. 선동원(당분조장 겸임)은 반원들의 사상교양을 담당하며, 인민반의 당원들로 구성된 당분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별도로 둔 안전소조원(비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부에서 배치한 감시원으로, 주민들 누구도 존재를 모르는 보위부와 보안부 요원 가구가 일반 주민으로 위장하여 인민반마다 소속 세대로 포함되어 있다.<sup>20)</sup> 이들은 인민반 내 방문자에 대한 조사, 특히 불순분자들이 침투했는지, 이들이 어떤 주민들과 접촉하는지에 대한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인민반원 중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당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당세포'를 만들어 당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민반에서 '당세포'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데, 연로보장을 신청한 나이든 당원이나 가두여성들 중에서 드물게 입당한 여성들이 해당한다.<sup>21)</sup> 당원이 아닌 노인들도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해야 하며, 대다수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두여성(전업주부)'들은 인민반 활동과 별도로 '여맹'에 속해 있다. 인민반은 정기적으로 '인민반회의'를 개최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원칙인데, 국가적인 행사가 있거나 중앙에서 새로운 방침이 떨어지거나 하면 거의 매일 회의가 있게 된다. 만약 타당한 이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세대는 '인민반과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가진 집'으로 보위부와 안전부에 통보되어서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인민반회의 내용은 계획수행 정형 총화, 배정표 분배 정형, 과제수행정형, 선전자료 동원과제, 주재원들이 주는 과제 등도 알려주고 당조직이나 안전부 등에서 받은 지시를 하달한다.

2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138~139.

21)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2004), pp. 262~263.

### Ⅲ.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

인민반의 역할에 대하여 북한의 <조선대백과사전>에서는 “인민반은 당과 국가의 정책을 반원들 속에 침투하고 그들을 당주위에 묶어세우며, 가정과 마을, 거리를 위생문화적으로 꾸리고, 국가사회재산을 애호하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지원하고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 불순분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는데 이바지한다.”<sup>22)</sup> 고 규정하고 있다.

#### 1.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 구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북한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집단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82조에서는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집단주의적 가치는 조직생활을 통해 학습되고 장려된다.

북한 모든 주민들이 주거별로 인민반 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집단주의 가치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보통 북한 주민들은 직장파주거지 근접의 원칙(도보로 30분 이내에 도착함)에 따라 직장 부근에 주

---

<sup>22)</sup>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 654.

거지를 배치함으로써, 원거리 통근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했다. 또한 주택공급의 부족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고층살림집(아파트)이나 '하모니카 집'<sup>23)</sup> 등과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체 구성을 통한 집단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반은 지역 사회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집합적 생활양식의 정착방안인 공동주택이라는 생활양식과 직장과 주거지 근접이라는 '동시공간' 배치의 사회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생활의 물적 토대를 갖추는 방식이다.<sup>24)</sup> 이렇게 밀집된 북한의 공동주택은 주민들 상호간의 친밀감이 형성되지만 거동이나 동태가 파악할 수 있어 이웃 간의 감시도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민반원들 간의 관계는 서로 친밀하면서도 경계하는 이중적 관계가 된다. 결국 공동주택과 같은 집단 주거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생활적 편의와 노동력 제고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인민반 편성에도 적용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 국가 권력의 개입과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인민반은 공동체적 구성으로 인민반의 모든 가정이 서로 알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인민반원들 간의 연대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특히 인민반장과 인민반원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인민반장의 역할에 따라 인민반의 분위기가 활발해지거나 위축되기도 하여 조직의 유대감이 좌우된다. 인민반장과 반원들이 관계가 좋은 경우, 반장의 호칭이 '큰엄마,' '반장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가족처럼 지내기도 한다. '누구집'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반장이 집집마다 다니며 쌀이나 돈을 모아준다. 또 인민반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23) 도시 외곽의 주민들이 사는 집을 '하모니카 집' 또는 '토끼집'이라고도 불린다. 방 1개에 부엌이 달린 집들이 단층으로 3~4채가 연이어 붙은 연립주택이다.

24)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제2호 (2004), pp. 111~112.

인민반 반원들이 부조금 내어서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고, 옆집 부부가 모두 출장하게 되면 인민반 반원들이 그 집의 아이들이나 가사를 돌봐주는 등 서로 돕고 의지하는 전통적인 공동체 관계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sup>25)</sup>

또한 북한의 인민반은 국가사회 내에서 형성된 관료제적 조직체계가 주민생활에 침투해서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따라서 인민반에서 주민들은 스스로 조직에 순응하며, 자신의 능력보다 관계에 의존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sup>26)</sup> 특히 북한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한 곳에 일생동안 정주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들 간의 관계를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다. 열악한 생활조건과 환경의 긴장은 인간 상호관계를 밀집시키며, 서로 간의 의존성을 높인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민들은 경제적 토대가 빈약하기 때문에 상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웃 간에 상부상조가 필수적인 구조이다. 특히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체 인구를 포함하는 말단조직이다. 아무리 높은 간부라도 인민반에서는 누구집의 아버지일 뿐이며, 필요에 따라 조직화된 ‘사회적 관계망’의 의존과 연결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실현할 수 있다.

## 2.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과제수행과 사회동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중동원의 정치노선을 활성화 왔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의 주인’이라는 논리로 군중

25) 홍범식, “인민반을 찾아서: “우리가 한 식솔이나 같은 걸요,” 『민족21』 (2004), p. 99;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pp. 158~160.

26)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p. 156.

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군중동원 노선을 강조하였다. 그 사례로 1956년에 최초로 시작한 '천리마운동'과 1960년대는 '6개고지운동', 1970년대는 '속도전', 1980~90년대에는 '속도창조운동', 최근에는 '만리마운동' 등이 있다. 이러한 군중동원에는 근로조직, 직장, 학교뿐만 아니라 인민반의 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인민반에 하달되는 과제는 크게 사회동원과 경제과제로 구분되며, 각 인민반별로 '뭉 바쳐라, 어디 동원 나가라' 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1) '마을과 거리 꾸리기' 과제 수행

인민반의 중요한 역할로는 '마을, 그 주변을 알뜰히 꾸리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과 도시거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인민반은 도시미화, 도시정비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인민반에서 '꾸리기'를 위한 일체의 비용은 국가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필요한 비용을 각 세대별로 얼마씩 내라고 인민반장이 지정한다. '마을과 거리 꾸리기' 시기는 매년 3월쯤 겨울 동안에 얼어있던 오물들을 제거하며 4월까지 이 과제가 집중되고, 봄·가을에는 매일 반원들은 출근 전과 일요일에도 의무적으로 동원된다고 아래와 같이 알려져 있다.

“새벽 5시면 반장이 문 두드린다. “아지미(이모), 도로청소 나가요.” 밥을 얹혀놓고 나갔다가 돌아오니 밥이 새까맣게 타붙었다. 급히 밥을 먹고 나는 출근해야 한다. 그 다음날은 “아지미, 도로공사 나가요.” 새벽 5시 철주아버지 차에 자갈을 싣고 반원들은 공사장에 갔다 온다.”<sup>27)</sup>

27)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pp. 162~163.

특히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까지는 얼마나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지가 충성도의 기준이 된다. 평양은 최고지도자의 현지도나 김일성 생일 관련한 외국 인사들의 초청과 같은 특별행사가 있으면 ‘마을과 거리 꾸리기’를 위해 인민반원들이 며칠 동안 아침, 저녁에 집중적으로 동원된다고 알려져 있다.<sup>28)</sup> 북한에서 지역중심은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등 우상화 상징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런 우상화 상징물 근처의 주민들은 ‘마을과 거리 꾸리기’가 더 강화된다. ‘꾸리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청소, 살림집에 외장재 바르기, 도로청소 및 보수, 구획정리, 공원과 놀이터 청소, 거리정리 및 나무심기, 풀베기, 배수로 보수, 오물장청소, 공동청소구역 보수 등의 작업동원이 있다. 또한 인민반의 ‘마을과 거리 꾸리기’와 관련하여 ‘3·16모범가정’ 꾸리기이라는 것이 있는데, ‘3·16모범가정’은 내부는 궁전 같이 외부는 공원같이 꾸리는 모든 세대가 ‘3·16모범가정’이 된다.

## 2) 다양한 경제과제의 수행

인민반은 당의 말단단위로서 하달되는 많은 경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인민반장이 과제 수행에 따라 생필품, 공산품 배정표를 주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배급 때 삭감하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먼저, 인민반에서는 ‘유휴자재’ 수집과 수매(바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유휴자재’란 쓸모가 없어 집에서 놓고 있는 자재(생산부문에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재)를 의미한다. 가정에 있는 ‘유휴자재’를 모조리 찾아내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이바지 한다는 명목이며, 파철과 파동, 파지와 파고무, 파유리, 빈병, 파자재, 파비닐, 고포(현옷) 등 총 20여 종이 있다. 각 가구별로 ‘유휴자재’의 할당량이 보통 정해져 있으

28) 『로동신문』, 2014년 4월 22일.

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집하여 수매소에 제출해야 한다.<sup>29)</sup> 동사무소에는 인민반별로 수매실적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경쟁을 유도한다. 북한은 인민반별로 수집한 '유휴자재' 등을 활용하여 만드는 '8.3인민소비품'<sup>30)</sup> 생산운동을 장려해 왔다.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광범한 인민들의 지혜와 창발성에 의거해 다종다양한 소비품을 만들어내는 대중운동"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31)</sup> 인민반에는 가내작업반(가내반)이 상당수 조직되어 있다. 가내작업반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두여성(전업주부)과 연로보장 노인들이 참여하여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도모하는 조직이다. 이 가내작업반에서 '유휴자재' 등을 이용해 장갑, 머리핀, 간단한 생필품을 만들어 각 지역에 있는 '8.3인민소비품' 상점에 판매할 수도 있다. 또한 인민반이 수행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외화벌이' 과제수행이 있다. 개·돼지와 같은 가축을 기르거나 누에 고치수집, 금모으기, 송이·고사리 등 산나물과 약초 채취, 해삼·명태 등 해산물 공출 등 달러나 엔화를 벌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대상이 된다.

### 3)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자지원과 사회동원

인민반의 세대별 과제수행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각종 사회동원이 있다. 사회주의 건설지원에는 농촌에 대한 물자지원과 건설현장에 대한 물자지원, 군대에 필요한 물자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며, 건설현장과 농업생산, 군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물자들을 징발한다. 이런 물자지원은

29)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pp. 162~163.

30) 김정일이 1984년 8월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제품 전시장'에서 부산물과 폐기물을 이용해 생활필수품을 만들 것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생필품 공급 체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31) 『조선신보』, 2006년 11월 28일.

시기별, 사안별로 아주 다양하게 많으며, 이 외에 월별로 해당 과제수행에 대한 지시가 내려온다. 참고로 아래의 <표 1>은 인민반의 각 세대별로 수행해야 하는 물자 지원대상과 지원물자 내역이다.

<표 1> 인민반의 세대별로 수행하는 물자 지원대상과 내역

지원대상	지원물자 내역
협동농장	호미, 낫, 트랙터(트랙터) 부속품, 차 부속품, 장갑, 고객지원, 분토, 인분가루 등
탄광	곡괭이, 장갑, 삽, 스페너, 나사, 기계부속 등
도로건설공사	들채, 목도채(나무 몽둥이), 삽, 고기, 곡괭이, 장갑 등
군대	함, 목달개(털목도리), 비누, 수건, 신발, 치약, 칫솔, 바늘, 실, 수첩, 공책, 손거울, 영양제, 보약, 위문편지, 도시락, 떡, 돼지 등 총 36가지 품목 중에서 반드시 5가지 이상을 지원해야 함

\* 출처: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2006), p. 190을 참조하여 수정함.

위의 군대지원물자는 북한에서 ‘원호물자’라고도 하는데, 군인들을 돕고 보살펴주기 위해 마련되는 물건이나 제품을 말한다. 주로 김일성 생일(4월 15일)과 인민군창건일(4월 25일)에 인민반별로 물자를 수거하여 군부대를 방문한다. 때로는 인민반별로 도시락, 돼지, 떡을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보내기도 한다.<sup>32)</sup> 국가 건설동원은 주로 인근 지역에서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돌격대의 지원을 위해 후방물자 등의 과제가 상시 부과된다. 인민반의 농촌지원 물자 중에서 비료대용인 ‘분토’(인분을 말려 흙과 섞은 거름)를 수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아래와 같이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32)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2006), p. 190.

“인민반 과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세대별 ‘분토’ 과제인데, 이것은 흙이나 무연탄 재에 인분을 섞어서 가열된 철판 위에 인분을 올려놓고 건조시켜 정해진 중량만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다. 농촌에 보낼 분토 생산과제는 지금 생각해도 골치가 지끈거릴 정도다. 한 겨울에 집집마다 30kg씩 분토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었다. (중략) 동네방네 인분 말리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다.”<sup>33)</sup>

인민반의 사회동원은 농촌지원전투, 국가건설동원 등이 있으며 모두 무보수이다. 직장인들은 소속된 직장에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낮시간의 사회동원은 직장을 가지 않는 유희노동력으로 간주하는 가두여성들(전업주부들)과 노인들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물론 직장인들도 예외가 아니라, 보통 출근 전에 1-2시간 사회동원에 참가하기 때문에 ‘아침식전동원’이라고도 한다.<sup>34)</sup> 농촌지원전투는 계절마다 모내기, 김매기, 추수동원 등이 있다. 국가건설동원은 인민반의 세대원들이 주로 인근 지역에서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돌격대의 요청으로 돌이나 자갈 등 공사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공사현장에 나르는 역할을 담당하며, 탄광지원, 광산지원, 발전소 건설 등에 동원된다.

한편 북한에서는 87년 2월부터 ‘7·11 붉은기 인민반 칭호 쟁취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11일에 시·군 지역별로 「본보기단위」에서 한 개의 인민반을 각각 선정하여, ‘7·11 붉은기 인민반’<sup>35)</sup>의 칭호를 수여받는다. 각 마을의 인민반에서는 이 칭호를 쟁취하기 위해 인민반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및 위생문화사업, 각종 과제수행과 노력동원 등에 주력하며, 칭호를 수여받는 날에는 해당 인민반은 모두 축제 분위기라고 알려져 있다.<sup>36)</sup>

33) NK 조선 홈페이지; <<http://nk.chosun.com/>> (검색일: 2017.12.7).

34) 『로동신문』, 1992년 2월 5일.

35) 7월 11일 붉은기인민반 칭호쟁취운동은 1972년 7월 11일 김정일의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실무지도’ 때 거론된 내용을 87년 2월부터 대중운동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3. 주민들의 일상생활 통제와 감시

북한에서는 건국초기부터 국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와 사회통제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북한 당국은 인민반 조직을 통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당의 정책을 집행하며 조직 내의 모든 반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한다. 인민반 생활의 주요 요소 중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숙박검열’이며, 주민들의 거주와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되어 왔고, 그 대표적 예가 ‘여행증’ 제도이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여행증’은 표면상 치안확보를 목적으로, 그 발급이 매우 까다롭다.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여행증을 자신의 직장, 또는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인민반을 통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뚜렷한 사유없이 단지 여행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적인 이유로 여행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관혼상제 때에는 친척이 보내준 편지가 필요하다. 특히 평양과 국경지역, 나진선봉 등 자유무역지대, 개성 등 휴전선 지역에는 여행증 발급이 어렵다. 이 지역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행증명서에 승인번호가 있어야 하며, 푸른 줄이 가로질러 그어져 있다.<sup>37)</sup>

여행증을 발급받은 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그 지역의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온 친구나 친척을 하룻밤 묵게 하려면 인민반의 ‘숙박등록대장’에 친인척의 이름과 숙박목적, 날짜 등을 기재하여 해당지역 분주소(파출소)나 보안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의 경우 ‘불법여행자’로 취급되어 인민반장이 담당 주재원(보안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다. 또한 숙박등록

36)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p. 161.

3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102.

을 하지 않고 숙박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자와 집주인도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가택 수색은 개인 주거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79조는 '개인 주택의 불가침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가택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 공간 불가침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은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인민반장의 불법 가택 검열이 오랫동안 관행되어 왔다. 인민반의 세대별 검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숙박검열'이다. 보통 '숙박검열'은 '불순이색분자'를 색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안서의 계획에 의해 야밤에 진행되는데, 어떤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비상경계령이 내리면 임의의 순간에 진행하기도 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는 것은 주민들이다. 밤중에 불쑥 나타나는 숙박검열을 할 때, 이불장, 벽장 안까지 살살이 뒤지면서 사생활의 공간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적영역까지 국가 권력이 개입되어 주민들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

“숙박검열은 항상 인민반장을 앞세우고 담당 보안원이 진행한다. 보안원 상호 간 담당지역을 바꿔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밖에서 “숙박검열 왔소.” 하고 소리치면 몇 초 안으로 이내 문을 열어야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의심하고 심한 수색과 추궁이 따른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서둘러 문을 열게 된다. 들어와서는 식구들을 하나하나 세어 본다.”<sup>38)</sup>

인민반장은 해당 반원들을 모두 관리해야 하며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와 감시를 하는 공개된 '스파이'이다. 이처럼 인민

38)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 <<http://www.rfa.org/>> (검색일: 2017.12.7)

반장들이 북한 체제내부를 지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민반장은 가정을 불시에 방문하여 위생문제, 라디오 주파수<sup>39)</sup>, 출판물(불온서적),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관리, 위생(목욕, 이발), 연탄가스 등의 검열을 한다. 인민반장은 집에 드나드는 손님, 심지어 각 세대의 손가락이 몇 개, 이불이 몇 채라는 것까지 포함해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인민반의 공동체 생활을 책임진다. 인민반 세대에서 자주 싸우는 집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에 대해서도 보고 해야 하며, 세대주의 도박문제, 불량자녀 문제 등의 가족문제와 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된 직장에 가지 않는 것, 직장 무단결근 등 반원들의 동향파악 등도 인민반장의 감시와 관리 영역에 속한다. 만약 인민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세대주가 다니는 직장에도 통보되어 불이익과 제재를 받게 된다.

인민반장은 매일 아침, 저녁에 한 번씩 세대를 돌며, 인민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해 동사무소와 주재원(보안원)에게 보고를 하고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주재원은 분주소장(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 인민보안서, 인민보안성, 중앙당까지 보고되는 일사불란한 체계이다. 아래의 <표 2>는 인민반 통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인민반장이 모든 인민반원들에 대한 파악과 일상생활 자료를 관리·보고하는 각종 문서들이다.<sup>40)</sup>

39) 라디오를 사면 주재원에게 가서 주파수를 고정하는 작업(땀질)을 하고 인민반장들에게 한 달에 한번 씩 검열을 받는다.

40)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 (2006), p. 188.

〈표 2〉 인민반장의 반원들과 관련된 관리·보고하는 각종 문서들

문서종류	사용목적	기록내용	총화 횟수
세대주 명단	인민반 세대주 확인	이름, 나이, 직장, 직위, 당원, 거주 이동, 생년월일	-
세대 명단	인민반 주민등록 검열관련 인구통계 작성 제출	이름, 나이, 직장, 직위, 당원, 거주 이동, 생년월일	월1회
숙박등록대장	외부인원 통제	부모, 친척, 친구 등 모든 외부 인원의 이름과 방문목적과 시간	-
경제계획 수행정형 기록대장	저금, 수매, 외화별이	인민반 세대별 과제수행 내용	-
배정표 기록노트	양복지, 숙내의, 국수표 등의 분배	세대별 안내표 수량, 날짜, 배정내용	월1회
인민반 회의록	인민반장 회의기록	인민반 회의날짜와 내용	월1회
사업노트	인민반장 활동기록	반장	-
가스순찰노트	연탄가스중독 방지 순찰기록	가스순찰 내용	매일

출처: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 (2006), p. 188를 참조함.

## IV. 북한의 경제난과 인민반의 역할 변화

### 1.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반의 역할 약화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심화된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 사회에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배급제에 의존하던 주민들은 계획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자립적 생존 방식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나 조

직에 대한 연대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장마당을 통한 외부사조 유입 및 주변세계 동경의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조직생활 참여 및 기피가 사회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제해야 할 조직 책임자들까지 체제이완의 허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각종 조직생활에서 이탈하여 사상교육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정치와 사상보다는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의식의 변화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전역으로 확산된 사회적 이탈 내지 ‘비사회주의적 행위’도 증가하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배급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을 직장과 지역사회와의 공적 관계망에 긴박시켜 왔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붕괴로 물질적 기반이 와해됨에 따라 기존의 공적 관계망의 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강화되었다.<sup>41)</sup> 공적 관계망의 하나인 인민반의 역할과 활동도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인민반의 조직에 대한 연대의 약화는 반원들 간의 무관심의 태도가 만연되었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강화되었다.

“식량난을 겪으면서 모두가 사회주의라는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우리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힘껏 해야겠다는 개인주의로 되었다. (중략) 인민반 조직에서 암만 나와라 외쳐도 우리가 먹고 힘이 나야 사회주의도 지키지.”<sup>42)</sup>

또한 북한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식량난은 인민반장들로 하여금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인민반원 역시 인민반장의 지시

41)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제2호 (2004), p. 126.

42)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집 2호 (2004), p. 207.

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인민반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인민반장은 모두 다 얼빠진 사람이나 정신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나서서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저런 이유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요즘처럼 식량난이 막심한 때 끼니를 구하려고 모두들 동분서주하는데, 인민반장이 사회동원이니 물품지원이니 요구하러 오면 달가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돈이나 물품을 내기 힘든 형편의 집에 갔다가 잘못하면 욕먹기 십상이고 삿대질 받는 일이 허다하다.”<sup>43)</sup>

인민반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생업에 종사해야 하고 장마당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인민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민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인민반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반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민반장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인민반장은 중앙으로부터 지시되어 온 할당량만큼 과업을 수행해야 했고, 장사로 바쁜 여성들을 대신해 주고, 이들로부터 식량, 생필품 등을 얻을 수 있었다.<sup>44)</sup> 또한 배급제 붕괴로 인한 조직적 연대의 약화와 인민반의 조직 이완 등과 함께 인민반장의 태만을 가져왔었다.

배급제와 인민반 공급의 중단은 인민반 반원들의 조직 이탈을 가져왔고 인민반을 통한 정책관철에 대하여 무관심을 가져왔다. 북한에서 주민 이동제한을 위한 여행증명서와 동향감시 목적의 인민반 역할 등 체제유지의 버팀목인 이른바 주민 통제시스템이 이완되었다. 또한 시장이 확대되면서 조직 연대감보다 사적 연대감을 더 중시하게 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민반장들과 주민들과의 사적 결탁관계가 많이 이루어졌다.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 면제나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뇌물과

43)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70호 (2007).

44) 위의 논문, p. 207.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이익을 매개로 한 사적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뇌물을 비롯한 부정한 방법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잦으며, 무단 이동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뇌물만 주면 무마되었다. 인민반장들이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뇌물로 받고 인민반 불참을 무마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반장들의 공안기관에 대한 주민동향 보고 건수도 줄어들었다.

“주민들이 최근에 북한 전역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인민반장에게 뇌물을 주면 다음날 여행증이 바로 나온다. 남한 영상물을 몰래 보다가 적발될 경우 인민반장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기도 했고, 검열을 나온다는 사실을 인민반장이 미리 귀띔해 주어서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sup>45)</sup>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인민반 조직의 이완으로 인해 통한 주민통제와 감시기능도 크게 부진하게 되었다. 생계를 위해 전국 각지로 중국까지 들락거리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인민반원이 사라져도 이를 방임할 수밖에 없고, 규제할 방안도 없었다. 결국 경제난을 인해 북한의 말단 기층조직인 인민반의 역할 체계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 2.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반의 역할 강화

### 1) 인민반 조직 재정비와 인민반장의 처우개선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체제가 점차 이완되면서 체제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인민반 조직의 재정비와 인민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을

<sup>45)</sup>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17.12.7)

통해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먼저 경제난 이후에 2000년 초반 인민반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통해 인민반의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느라 인민반 사업을 소홀히 했던 인민반장들은 대거 교체되었고, 인민반장의 열의를 높이고 인민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주민들 중에서 인민반장을 임명하였다고 알려져 있다.<sup>46)</sup>

“2000년 초반에 경제력이 부족한 인민반장들을 교체하기 시작했다. 인민반장이 관찮게 살아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인민반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민반장을 시켰다. 이전에는 당성이 투철하고 충성심이 높은 사람을 인민반장을 시켰는데, 요즘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 인민반장을 시켰다.”<sup>47)</sup>

또한 북한 당국은 사회생활의 기층조직인 인민반의 사업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홍망성세'가 좌우된다고 여기면서, 사상교양의 강화를 통한 인민반장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인민반장들은 애국심과 반제의식 등 다양한 사상교양을 거의 매일 받았다. 조선중앙TV에서는 '인민반장들의 역할'에 관한 보도물을 소개하게 된다.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인민반장'들의 사상학습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민반장'들에 대한 혁명사상 강습과 당정책 학습을 자주 조직함으로써 모든 '인민반장'들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 반제의식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8)</sup> 또 경제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 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많은 인민반장들에게 훈

46)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p. 160.

47) 위의 논문.

48) 『조선중앙통신』, 2000년 5월 9일.

장 1급을 수여했으며, “전국 인민반장 열성자 대회에 참가한 인민반장들은 우리 사회의 기층조직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인 동 인민반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해 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다”고 격려하였다.<sup>49)</sup> 이는 느슨해진 주민통제를 보강하기 위해 인민반장들을 평양에 불러 회의를 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반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고난의 행군시기에 생업에 종사하던 인민반장들에게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그들의 처우 개선과 인민반 사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 인민반장에게 식량배급 600g과 3000원(현재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평균 3000~5000원 정도)으로 일반 노동자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연로보장도 인정해 주었다.<sup>50)</sup>

“최근에 인민반장이 되면 많은 혜택이 있다. 각종 검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숙박검열, 비사회주의검열이 나와도 제외된다. 물자지원과 세대부담에도 인민반장은 제외된다.(중략) 그래서 인민반장을 서로 하려고 한다. 인민반장은 월급도 나오고, 인민반원들도 반장 말을 잘 듣고, 듣지 않는다면 반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가족이 추방될 수 있다.”<sup>51)</sup>

또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태가 이상하거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한 반원들을 신고한 인민반장들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거액의 포상금과 TV같은 선물을 하사하고 있다.<sup>52)</sup> 이는 인민반장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49) 『로동신문』, 2007년 2월 25일.

50) 김연지, “인민반은 북한 주민들의 감시조직,” 『북한』, 통권 546호 (2017), p. 114.

5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9호 (2009).

52)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 <<http://www.rfa.org/>> (검색일: 2018.1.8).

돌아가도록 하여 인민반장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인민반장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뒤를 봐준다. 인민반장 식구 중에 누군가가 비법행위나 비사회주의 행위를 하더라도 많이 봐 준다. 국경연선지역인 경우 여행증 발급을 쉽게 해준다. 인민반장이 지방이나 국경연선이나 전역 어디에 친척이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여행허가증을 쉽게 발급해 주기도 하고, 인민반장의 집에는 전화 설치를 하고 있다.”<sup>53)</sup>

또한 경제난 이후 북한 당국은 국가적 차원의 노동력 차출이 계속 늘어나고, 모든 사회동원이나 과제수행이 인민반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인민반장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

“인민반에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인민반 반장의 권위를 높여준다. 인민반장들이 가히 보안서 간부들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정도다. 이전에는 인민반 반장이라고 해봐야 일반 주민들과 다를 바 없었으나, 요즘엔 보안원 간부급처럼 존대를 해주는 분위기다. 요즘의 인민반장 자리는 경쟁이 하도 치열해 웬만한 사람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자리가 됐다.”<sup>54)</sup>

1990년대 이후에는 배급이 중단되고, 인민반의 절대 다수 주민들이 더 이상 월급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 분주해지면서 인민반 회의 자체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당국이 인민반장의 처우개선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권한 강화를 하면서 인민반 사업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다소 흐트러졌던 인민반의 기강확립과 인민반장의 주민동원과 통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53) 자유아시아방송 홈페이지; <<http://www.rfa.org/>> (검색일: 2018.1.9).

54) 좋은벗들,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2006-2007』 (서울: 좋은벗들, 2008), p. 39.

## 2) 강화된 주민통제와 검열의 확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사회체제가 점차 이완되면서 다른 조직들을 통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자 인민반을 통한 주민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흐트러졌던 인민반의 기강 확립과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제난 이후 각종 생계형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2001년부터 북한 당국은 인민반마다 경비를 복원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sup>55)</sup> 원래 인민반마다 마을 입구나 아파트마다 경비초소를 꾸리게 되어 있다. 경비초소의 목적은 외부인 출입통제와 방문자 신원을 체크하며 외부방문자 명단을 인민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 경비초소의 경비원은 인민반장의 추천에 의해 퇴직자나 가두여성을 임명한다. 물론 경비비용은 인민반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sup>56)</sup> 인민반 경비초소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거의 운영되지 못했다. 누군가 문짝을 뜯어가고, 누군가 불만을 표시하여 유리창을 깨버리는 등의 일들이 일어났다. 나중에 이 경비초소는 먹을거리를 파는 작은 상점으로 변하여 그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제난 이후 기능이 상실된 인민반 경비초소마다 낮에는 2명, 밤에는 3명 이상의 경비근무를 강화했으며, 직장인들이 퇴근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외부인이 출입하면 무조건 단속하여 공민증 검열과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다.<sup>57)</sup> 현재 북한 당국은 치안유지를 위해 인민반의 경비초소를 복원하고, 경비 강화를 통해 불순분자, 도둑, 범죄자에 대한 통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각 인민반에서는 경비비용을 놓고 인민반장과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알려졌다.

55) 『로동신문』, 2001년 2월 25일.

56) 홍범식, “인민반을 찾아서: “우리아 한 식솔이나 같은 걸요,” 『민족21』, (2004), p. 99.

57)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17.12.9)

“경비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특별히 장사거리가 없고 가난한 연로보장자들로 경비원을 뽑고 있다. 보통 한 인민반이 30세대 정도이니 가정세대들은 매달 경비비용으로 (북한 돈) 7천원을 내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집은 털어 갈 것도 없다’고 버티며 돈을 내지 않아 인민반장과 싸우기도 했다.”<sup>58)</sup>

북한 당국은 경제난 이후 인민반에 ‘1일 점검체계’를 시행하여 사상적 이완과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고 이탈자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59)</sup> 인민반의 ‘1일 점검체계’는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인민반장들이 매 가정세대를 돌면서 인원을 점검하고, 집을 비운 주민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적어 즉시로 동 사무소에 전달토록 하는 체계이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인민반이 주민동향을 매일 점검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민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탈북이 계속 증가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매일 숙박검열과 인민반들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인민반장들로 하여금 수시로 연락해 특이한 행동이나 동향이 있는 가정들과 반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 상황을 서로 공유하여 보다 빠르게 보위부에 보고를 한다.<sup>60)</sup> 보위부는 인민반 내에서 탈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주민이 있다면 해당 인민반장뿐 아니라 주변 인민반장까지 동원해 동향을 파악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민반장이 이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탈북 징후가 포착되면, 보위부원들은 해당 주민 집을 수색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체포한다. 이러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인민반장 간의 비랑연락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국경지역의 인민반을 ‘10세대 1조 책임제’를 시행하여 탈북자

58) 자유아시아방송 코리아; <<http://www.rfa.org/korean/>> (검색일: 2017.12.7)

59) 자유아시아방송 코리아; <<http://www.rfa.org/korean/>> (검색일: 2017.12.9)

60)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17.12.9)

세대가 생기면 나머지 9세대가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감시도 더 강화하였다.<sup>61)</sup>

최근 법제도적인 면에서도 주민행정법을 정비하여 인민반의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주민행정법에는 신분등록, 인민반생활, 숙박질서 등 북한주민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주민행정법의 개정으로 인민반 제도에 관련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먼저 개정된 주민행정법 제30조는 ‘주민은 인민반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가정생활을 사회주의적으로 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검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2)</sup> ‘자각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사실상 인민반을 통한 주민들의 가정생활 개입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10조는 인민반에 반장과 부반장을 두고 인민반장과 부반장을 인민반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인민반에 부반장을 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규정은 ‘관리담당구역제의 실시’이다. 주민행정법 제21조는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 담당구역을 정해주고 그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63)</sup> 주민행정법 개정을 통한 인민반에 부반장이라는 새로운 직책과 관리담당구역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주민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인민반의 반원들에 대한 검열의 대상은 더 확대되고 집요해졌다. 특히 비사회주의적 현상, 외부사조에 의한 다른 체제 동경의식 확산, 외부문화 모방과 같은 사회적 병폐를 배격하고 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민반 회의도 일주일 한번 정도 열렸던 것이 2-3일 한번 정도로 자주 열리고 있다.<sup>64)</sup> 아래는 인민반 회의에서 인민반

6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23호 (2010).

62) 『조선중앙통신』, 2010년 8월 9일.

63)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정비와 체제유지』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2.

원들을 대상으로 '인민반사업을 강화하자'는 요지의 강연자료이다. 여기에서 주민들이 예전만큼 이웃들의 생활방식에 철저하게 감시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 수 있다.

“불순 록화물을 몰래 보거나 류포시키는 현상, 차판장사를 하는 현상, 돈을 받고 불건전한자들을 숙박시키거나 집을 빌려주는 현상, 밀주행위 등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의 대다수가 사람들의 생활거점인 인민반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일을 보고도 자기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 하여 못 본체 눈감고 있다.”<sup>65)</sup>

또한 경제난 이후 인민반장의 주민들에 대한 '경제수준 등의 상시검열'이 새로운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장마당이 성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 협동농장 등 공식적으로 소속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부업을 하는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비공식경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의 씹씹이' 감시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인민반장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어느 집의 세대주가 출근을 잘 하는지, 그 아내가 장마당에서 무엇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는지, 어느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지, 어느 집 밥상에 어떤 요리가 올라가는지, 누가 옷을 잘 입고 잘 쓰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어느 세대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경우 엄정 감시대상이 되며, 인민반장이 파악한 '주민들의 씹씹이'는 곧바로 당과 보위부, 보안부에 동시에 통보된다.”<sup>66)</sup>

경제난 이후 북한의 전력부족이 심각하다보니 인민반장의 전기검열 단

64) 좋은벗들,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2006-2007』 (서울: 좋은벗들, 2008), p. 39.

6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소식』, 제87호 (2007).

66) 자유아시아방송 코리아; <<http://www.rfa.org/korean/>> (검색일: 2017.12.8)

속도 더 강화되고 있다. 인민반장이 반원들의 집집마다 불시에 들이닥쳐 금지된 전기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즉시 회수하고, 벌금 부과에 옆집까지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는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매우 강도 높게 실시되고 있다. 이런 불시 전기검열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sup>67)</sup>

“경제난 이후 인민반 검열의 하나로 진행되는 전기검열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인다. 겨울이면 너무 추워 사람들이 불법으로 전기히터와 같은 전기용품들을 몰래 문을 걸어 집에서 쓴다. 그러다보니 전기검열원들을 앞세우고 오는 인민반장의 목소리는 저승사자 목소리처럼 들린다.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어야 하나 전기히터는 뜨거워서 빨리 감출수가 없다. 당황하여 전기용품을 치우다가 손을 데는 등 사고가 많이 생긴다.”<sup>68)</sup>

### 3) 모든 사회동원과 물자지원의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

경제난 이후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공장과 기업소 기업 및 공장들이 문을 닫아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진 가운데,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회동원과 과제수행이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생산을 못하는 공장기업소나 행정 권한이 없는 지방인민위원회의 간부보다 인민반장이 훨씬 힘이 있는 간부로 통한다.

“공장기업소의 80%가 생산을 못하는데다 종업원들도 출근을 하지 않아 사회적 동원을 인민반이 맡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금은 사회적 동원이 전부 인민반을 통해 조직되면서 인민반장이 직접 지시하고 작업량까지 할당해 준다. 인민반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적 동원과 사회적 과제가 내려지기 때문에 인민반장의 시세가 높아졌다.”<sup>69)</sup>

67)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67호 (2010).

68) 김연지, “인민반은 북한 주민들의 감시조직,” 『북한』, 통권 546호 (2017), p. 113.

기본적으로 인민반의 사회동원과 물자지원은 자발성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에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인민반의 사회동원과 과제수행이 점점 과도해지면서 더 이상 '자발'과 '자원'이 아닌 '강제'만이 수반되고 있다. 경제난 이후 인민반의 사회동원은 농촌지원 뿐만 철길, 도로복구, 탄광, 발전소, 아파트 등 다양한 국가 및 지방의 건설사업 전역에 걸쳐 투입하고 있으며, 특정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 년 내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인민반장이 사회동원에 빠지게 되면 세대 수에 기초하여 현금을 무조건 내라고 강요한다. 각종 건설장 지원사업, 군부대 지원사업, 철도지원, 농촌지원, 국토지원 등 각종 노력동원 지원 불참 시 한 세대 당 최소 3만원~5만원의 등을 부담해야 한다.<sup>70)</sup>

“인민반원들이 각종 동원과 거두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침 5시부터 농촌에 나가 과제를 다 못하면 돌아가지 못한다. 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무리하게 벌려놓아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사철까지 겹치며 온갖 동원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만약 동원에 빠지면 방송에 통보하고 회의에서 추궁하여 정 못 나가는 사람들은 3만원부터 5만원까지 돈을 받아낸다.”<sup>71)</sup>

최근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인민반의 사회동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돈주(신흥자본가)나 장사 때문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식별이꾼(일일노동자)을 대신 동원에 내보내는 '대리동원'도 등장하고 있다.<sup>72)</sup> 그렇다면보니 경제난

69) 자유아시아방송 코리아; <<http://www.rfa.org/korean/>> (검색일: 2017.12.8)

70) 좋은벗들,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2006-2007』 (서울: 좋은벗들, 2008), pp. 44~45.

7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9호 (2007).

72) 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36.

이후 인민반의 사회동원이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각종 사회동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동원에 무조건 참가해야 하며, 돈 있는 사람의 몫까지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과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sup>73)</sup>

“농촌에 대한 총동원령이 내리자 인민반의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농촌에 데려다 로동을 시키고 있다. 반면에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록 화기, 록음기를 틀어놓고 놀고 있어 힘없고 돈없는 우리들만 무보수로 농촌 지원사업에 동원되니 원통하며 불만이 점점 커가고 있다.”<sup>74)</sup>

경제난 이후 북한 당국은 과제만 내리고 국가와 지방 건설사업 모두 중앙의 지원없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책임지고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북한 전역의 인민반은 국가 건설현장에서 드는 필요한 자재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sup>75)</sup>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장마당 장사를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인민반의 가두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요즘 들어 인민반 동원이 심해졌다. 무조건 동원 나오고 무조건 지원금을 내라고 강요한다. 거절하거나 반항하면 장사나 다른 것으로 걸고 든다. 청진시 송평구역의 한 부양가족 여성이 장사밀천이 모자라 지원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다가 사법기관의 단속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여 가족들을 굶게 됐다.”<sup>76)</sup>

73) 자유아시아방송 코리아; <<http://www.rfa.org/korean/>> (검색일: 2017.12.8.).

74) 좋은벗들,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2006-2007』 (서울: 좋은벗들, 2008), p. 40.

75) 좋은벗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p. 267.

7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67호 (2007).

인민반은 당의 말단단위로서 하달되는 많은 경제과제를 수행해 왔다. 경제난 이후에 전국 말단조직인 인민반의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을 중심으로 각종 물자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외부담'의 형태로 강요하고 있다. '세외부담'이란 북한에서 사회동원이나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물품을 인민반의 세대별로 할당하고 내지 못하면 현금으로 납부하는 형태이며, '세부담', '세대부담'이라고도 한다. 인민반의 경제과제는 유희자재수집, 군대 지원, 외화벌이 과제 등이 있으며, 경제난 이후에는 인민반의 반원들이 현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없으면 무조건 현금을 내라고 강요받고 있다.<sup>77)</sup> 이런 방식으로 인민반이 분담하는 품목들은 시멘트, 철강재, 모래, 자갈, 목재, 못, 페인트 재료, 분토, 파지, 개가죽 등 다양하며, 대부분 '세외부담'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농촌, 건설현장, 군대지원에 드는 비용과 자재를 인민반 중심으로 하달되고 있어서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하루벌이 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데, 각종 과제들이 생계 부담을 가중하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요즘 견고 있는 개가죽은 한 세대 당 250원 상당인데, 쌀값 1kg에 550원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 수 있다. 여성들이 하루 종일 시장에 쭈그려 앉아 장사해서 250원에서 300원 정도 벌면 장사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상황인데, 꼬박 하루벌이를 세외부담에 바치게 되는 셈이다.”<sup>78)</sup>

중앙에서 할당받은 물자 품목을 각 인민반별로 수거해서 무조건 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식구수가 많은 세대는 적은 세대보다 더 많이 내야 하며, 식구 중에 젓먹이 아기가 있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만약 인민반에

77)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7집 2호 (2004), p. 207.

7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43호 (2010).

서 물자지원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반원들은 장마당에 나가 사서라도 바쳐야 한다. 어차피 당국에서 요구하는 과제는 무조건 바쳐야 하므로 돈을 주고 장마당에서 쉽게 사서 바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여긴다.

“인민반 별로 1인당 자갈 50kg, 고철 5kg, 구리 600그램 상납하라는 식으로 과제가 떨어진다. 혹시 상부에서 돈을 걷었냐며 추궁이 떨어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가정집에 이런 자재가 다 있을 리 만무하다. 결국 돈을 걷어 그냥 내던가 아니면 장마당에서 사서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장마당에는 인민반에서 요구하는 마대(포대), 토끼가죽, 휘발유, 시멘트, 석회, 도색 재료까지 판매하고 있다.”<sup>79)</sup>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재정과 자재의 부족으로, 각종 공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인민반에 요구하는 품목들이 식량부터 물자, 부식 등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냄비, 부지깥이 등 반원들의 집안 살림살이까지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인민반의 ‘세외부담’도 점점 가중되어 금전적 부담은 도를 넘고 있으며, 인민반장과 반원들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인민반장은 아침저녁 집집마다 돌면서 냄비, 부지깥이, 삽과 곡괭이, 못, 용접봉 등 건설자재와 장갑, 비누, 세면수건 상납 장부를 들고 다니며 못살게 군다. 최근 들어 각종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자재, 건설자들의 식량과 모래자갈 3톤, 식량 100kg, 김치30kg, 된장 30kg를 인민반에 분담하고 있다. (중략) 마을마다 지원물품 수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문을 두드리는 인민반장과 주민들 간의 싸움이 그칠 새가 없다.”<sup>80)</sup>

79) 김연지, “인민반은 북한 주민들의 감시조직,” 『북한』, 통권 546호 (2017), p. 109.

80) 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 (검색일: 2017. 12.15)

이처럼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부족한 측면을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를 통해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인민반의 역할로서의 많은 경제과제 수행과 국가건설 지원과 노력동원 등의 강도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다.

## V. 결론

북한 당국은 사회통제를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 건국부터 현재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북한 주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조직에 소속되어 일생동안 중첩적인 학습망으로 이어지는 '조직화된 강제'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규범적 압력을 받고 산다. 이 중에서도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통제하기 위해 20~40세대로 묶은 '인민반'이 조직되어 있다.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말단조직이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해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말단 기층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인민반의 시작은 1973년부터 5호담당제의 명칭과 제도의 전환에 의해 형성되었다. 인민반은 지방인민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당정책을 관철한다. 인민반의 구성을 보면, 인민반장과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안전소조원 그리고 인민반원들로 이뤄져 있으며, 인민반의 총책임자인 인민반장은 우리의 '통장'과 비슷하며, 인민반의 사업과 정책을 집행하고 통제하며, 주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공개된 '스파이'이다.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면 크게 첫째, 북한 모든 주민들이 주거별로 인민반 생활에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집단주의 가치를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인민반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집합적 생활양식의 정착방안인 공동주택을 통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고, 국가사회 내에서 형성된 관료제적 조직 체계가 주민생활로 침투해서 위로부터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민반원들 간의 관계는 서로 친밀하면서도 경계하는 이중적 관계이다. 둘째, 인민반은 당에서 하달되는 각종 경제과제와 사회동원 등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민반에서는 마을과 거리꾸리기 과제, 유희자재수집, 수매과제, 외화벌이과제 등의 다양한 경제과제를 수행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물자지원과 농촌, 국가건설 현장의 노력동원 등을 하고 있다. 셋째, 인민반은 인민반장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광범위한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한다. ‘숙박검열’을 통한 외부인의 감시, 세대별로 수시로 방문하여 위생, 초상화 관리, 부부싸움과 자녀의 일탈, 세대주의 도박 등 가정문제와 항상 반원들의 동향파악 등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은 북한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붕괴는 기존의 공적 관계망이 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적 관계망과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공적 관계망의 하나인 인민반의 역할과 활동도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었다. 인민반의 조직에 대한 결속감의 약화는 주민들 간의 무관심의 태도가 만연되었고, 인민반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인민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민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또한 인민반원 역시 인민반장의 지시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인민반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인민반 조직의 이완으로 인해 통한 주민통제와 감시기능도 크게 부진하였다. 결국 경제난을 인해 말단기층조직이라고 하는 인민반의 역할 체계는 이전에 비해 활력이 떨어짐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도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끝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민반 조직을 재 정비하면서 역할을 부활하게 된다. 먼저 인민반장의 대거 교체를 하고, 인민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민반장의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들의 사기를 높이고자 각종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다소 흐트러졌던 인민반의 기강확립과 인민반장의 주민동원과 통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역할을 복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민반의 경비초소를 복원하고, '1일 점검체계'를 시행하여 사상적 이완과 주민들의 동요를 차단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탈북이 계속 증가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매일 숙박검열과 인민반들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2000년대에 비공식경제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의 씹쓸이' 감시라는 새로운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제난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모든 사회적 동원체제가 공장이나 기업소 위주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민반의 사회동원은 농촌지원 뿐만 아니라 철길, 도로복구, 탄광, 발전소, 아파트 등 다양한 국가 및 지방의 건설사업 전역에 걸쳐 투입하고 있으며, 특정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 년 내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 이후에 전국 말단조직인 인민반의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은 인민반을 중심으로 각종 물자지원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외부담'의 형태로 강요하고 있어 반원들의 부담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인민반의 사회동원에서 빠지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돈주(신흥자본가)나 장사 때문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삭별이꾼(일일노동자)을 대신 동원에 내보내는 '대리동원'도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제난 이후 인민반의 사회동원이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반은 북한에서만 존재하는 세대별 가족단위로, 집단생활과 사생

활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이다. 인민반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인민반은 반원들의 조직 이탈과 태만이 급증하였고, 인민반을 통한 정책관철에 대하여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이 약화되었다. 경제난 이후인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인민반 조직의 재정비를 통해 역할을 복원시키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주민통제의 확대와 모든 사회동원과 물자지원을 인민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민반의 역할과 기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접수: 2018년 4월 30일 / 심사: 2018년 5월 1일 / 게재확정: 2018년 6월 1일

## 【참고문헌】

- 강지연. “우리 인민반: 눈물로 쓴 탈북민 수기.” 『북한』, 통권 516호 (2014).
- 김석향.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교육원, 2004.
- 김승철·박선영. “평양시 인민반 운영실태와 주민생활.” 『북한』, 통권 412호 (2006).
- 김연지. “봄을 맞는 북한 주민들의 삶.” 『북한』, 통권 544호 (2017).
- \_\_\_\_\_. “인민반은 북한 주민들의 감시조직.” 『북한』, 통권 546호 (2017).
- 김종수.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인문사회연구』, 제21집 (2008).
- 박경숙.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 박영자. “북한 지방 국가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중앙권력의 이중통제 지속과 아래로부터의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2005).
- 배영애. “북한 사회통제의 특성과 변화.” 『통일전략』, 제11권 4호 (2011).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 \_\_\_\_\_.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 북한연구소편. 『北韓社會論』. 서울: 북한연구소, 1977.
- 북한연구학회. 『북한의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알렉산드라 제빈.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통권 91호 (1994).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규창. 『북한의 주민통제 법제정비와 체제유지』.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기춘 외.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이미경.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의 변화: 탈북 여성과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47집 2호 (2004).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 사회통제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항구. 『북한의 현실』. 서울: 신태양사, 1988.
- 임도빈 외.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제53권 4호 (2015).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혜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집 제2호 (2004).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49호, 2007.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67호, 2007.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87호, 2007.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299호, 2009.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43호, 2010.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367호, 2010.  
 \_\_\_\_\_,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_\_\_\_\_, 『북한 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서울: 정토출판, 2001.  
 \_\_\_\_\_, 『북한 식량난과 북한인권』. 서울: 정토출판, 2004.  
 \_\_\_\_\_,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2006-2007』. 서울: 좋은벗들, 2008.  
 통일부.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9.  
 통일교육원. 『2016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_\_\_\_\_, 『201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6.  
 \_\_\_\_\_, 『2017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_\_\_\_\_,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_\_\_\_\_, 『북한 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_\_\_\_\_,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통일연구원.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서울: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7』. 서울: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8』. 서울: 통일연구원, 2018.  
 홍범식. “인민반을 찾아서: “우리아 한 식솔이나 같은 걸요.” 『민족21』 (2004).

### 기타자료

- 『로동신문』, 1967.9.13; 1987.2.15.; 2001.1.25; 2007.2.25; 2014.4.22.  
 『조선신보』, 2006.11.28.  
 『조선일보』, 2001.7.3; 2005.3.23  
 『조선중앙통신』, 2000.5.9; 2010.8.9.  
 NK 조선 홈페이지 <<http://nk.chosun.com/>>  
 데일리 NK 홈페이지 <<http://www.dailynk.com/>>  
 자유아시아방송 코리아 홈페이지 <<http://www.rfa.org/>>

## The Role and Change for maintaining the system of North Korea Neighborhood unit

Bae, Young-Ae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Neighborhood unit which exists only in North Korea is a unique structure in which family life and privacy coexist as family units. And it is an organization in whic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s public power and the policy enforcement are institutionalized. Neighborhood unit is the everyday space where the occupant's life penetrates. It is also the lowest organization that has complete control over the details of a personal area. North Korea's Neighborhood unit plays an important role and function as the largest organization that includes all the residents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The main roles and functions of neighborhood unit include the implementation of collectivism through collective housing, the formation of a social network, the social mobilization and task-mak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economy and inhabitants the daily living and control and monitoring. The role and function of neighborhood unit changed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socioeconomic environment. Especially,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1990s, Neighborhood unit weakening of the organizational solidarity has led to neglect of the leader's negligence and weakening of authority, the departure of the class members

and the policy-making through the neighborhood unit. Therefore, the role system of neighborhood unit has become less vigorous than before and it has become a great threat to North Korea's system maintenanc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the North Korean regime was gradually loosened and the leader were replaced and the organization was restructured. Neighborhood unit strengthened guard post restoration, daily inspection system and resident administrative law revision, resident money use, electricity check, resident control and monitoring. Since the economic hardship, all social mobiliz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re being carried out by neighborhood unit and the burden of the residents is increasing. After such economic difficulties, North Korean authorities have been supplementing the scarcity of economic and social resources to maximize the role and function of neighborhood unit in order to maintain the system.

Key Words: neighborhood unit, maintain system, social network, resident control.

**배영애(Bae, Young-ae)**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논문으로 “사회 통일교육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정은의 현지지도 특성연구,”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등이 있다.